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The Conflicts between Abstract Space and Concrete Space
in the Case of the Jeju-Island

서영표**

이 논문은 제주의 사례를 통해 특정한 공간을 생산하는 역사-구조적 조건과 그 안에서 전개되는 인간행위자들의 실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주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체험되어 온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제주인들의 행위와 실천의 조건이었지만 그들의 행위와 실천이 없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재생산되어 유지될 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앙리 르페브르로부터 연원하는 공간적 사회이론을 적극 수용한다. 르페브르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 천착하면서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공간적 사회이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의 주저 『공간의 생산』에서 절정에 이른 공간이론은 ‘공간 물신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사회구조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이 논문은 르페브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배적인 추상공간과 일상의 구체공간 사이의 갈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개발 이후 제주도, 특히 제주시 지역이 겪고 있는 공간이용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관광 중심의 개발 정책이 제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공간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침식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추상공간이 지배하게 되는 근대적 도시 발전을 비판하고 다양한 차이를 허용하는 구체 공간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주요어: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제주도, 근대화, 도심 재생

* 이 논문의 초고는 2013년 동아시아 해항도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학술대회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논문은 2014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었다.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seoyp@hanmail.net)

1. 머리말

최근 공간이론의 경향은 공간(space)을 이미 주어진 텅 빈 장소로 생각하지 않는다. 공간은 서로 갈등하는 공간적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제주’라는 공간도 바다, 산, 바람, 물처럼 제주인의 해석 이전에 존재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제주’(또는 탐라)는 다양한 사람들과 집단들의 실천과 해석이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하지만 공간은 인간들의 구성행위의 결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을 행위와 실천의 결과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극단적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t) 또는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입장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공간이 가지는 인과적 힘(causal powers)을 분석할 수 없다. 공간은 텅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행위, 관계, 상호작용의 산물이지만 그러한 공간은 행위, 관계, 상호작용에 인과적 영향을 끼친다(Soja, 1986: 98~99; Urry, 1986: 24~25). 이런 맥락에서 제주의 공간으로 인지되고 체험되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은 ‘언제나 이미’ 제주인들의 행위 또는 실천의 전제이지만 (인과적 힘을 갖지만) 그 행위와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역사-구조적 조건과 의미구성의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로부터 연원하는 공간이론을 적극 수용한다. 고전적 사회과학은 시간적 차원, 즉 역사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를 설명하는 데서 공간이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르페브르는 농촌에서 시작하여 도시로, 그리고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 천착하면서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공간적 사회이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의 주저 『공간의 생산』(*The Production of the Space*)에서 절정에 이른 공간이론은 ‘공간 물신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Castells, 1977) 사회구조와 행위,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일깨워 주었다.¹⁾

르페브르를 계기로 시작된 공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제

주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인식했는가, 즉 어떻게 그들의 공간을 구성하고 실천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육지와외의 관계에서 주변(periphery)일 수밖에 없었던 지정학적 조건과 주변적 위치로부터 강요된 지배-착취의 질서는 제주만의 독특한 공간-구조를 낳았고 그러한 지배-착취 질서 안에서 살아갔던 각 사회 집단들은 독특한 공간 전략을 통해 공간-구조에 적응하거나 저항했다. 여기에서 공간 전략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산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재현(representation)하는가의 문제였다.

공간-구조는 그 내부의 집합적 주체들의 실천을 통해 변형되기도 하지만 외부적 충격에 의해 근본적 변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제주인들에게는 근대화, 특히 1970년대에 시작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근대화 프로젝트가 이러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외적 충격은 시간적 격차를 보이면서 제주인의 삶의 양식과 의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공간-구조 안의 갈등하는 집합적 주체들 사이의 모순을 고조시킴으로써 지배-피지배 관계를 재편한다. 주체들의 공간 전략이 외부적 변수와 결합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지만 공간-구조가 가지는 인과적 힘은 사라지지 않고 그러한 인과적 힘에 적응/저항하는 주체들의 새로운 공간 전략이 출현하는 조건이 된다.

2. 공간의 의미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시간 중심의 세계 인식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은 시간적 차원에 천착했다. 사회과학의 인접학문인 동시에 그 일부를 이루는 (서양)철학은 유대-기독교적 전통으로부터

1) 카스텔의 비판을 수용한 르페브르의 재해석에 대해서는 서영표(2012a)를 보라.

연원하는 목적론적(teleological)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헤겔에서 그 정점에 이르는, 그리고 마르크스에게도 강한 흔적을 남겼던 역사발전의 법칙은 근대학문의 토대를 이룬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이성에 빛을 비추어 사회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했다(Soja, 1989).

사회과학의 창시자들은 자연과학의 방법을 ‘과학적’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이 ‘과학적’이라고 찬양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물리학에서 시작해 천문학에서 꽃을 피웠고 생물학 분야에도 충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것의 핵심은 인간의 역사는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무수한 파국과 단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온 진화의 결과라는 것이었다. 계몽주의자들의 진보(progress)는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 위에 세워져 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Keat & Urry, 1982: 76~80).

따라서 초기의 사회과학은 ‘진화’라는 생물학적 비유를 선호한다. 근대화(modernization)와 합리화(rationalization)는 사회라는 유기체(organism)의 진화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 유기체는 근대화가 가져온 충격의 두드러진 부분들을 결합해 만든 추상적 구성물이었다. 추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위 이념형(ideal type)이라는 이름 아래 진화의 시간선 위에 존재하는 근대와 그것과 대조되는 전근대(전통적) 사회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등장하고 이 두 유형 사이의 특징 비교와 후자에서 전자로의 이행이라는 역사발전이 사회과학적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다.²⁾

고전적 사회과학이 공간적 차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근대화의 주된 양상으로서의 도시화(urbanization)는 공간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도시적 삶과 농촌적 삶의 비교 또한 공간-지리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었다(Saunders, 1986: 13). 하지만 사회 이론에서 시간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시간 안에서 드러난 주요한 설명변수는 추상화

2) 이러한 단선적 역사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포스트구조주의로부터 제기된다. Foucault(1984: 88)를 보라.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비판은 Althusser(1977)와 Althusser & Balibar(1979)를 참고하라.

된 사회유형과 각각의 사회유형이 표상하는 시대적 정신을 구현하는 ‘주체’, 더 정확하게는 ‘주체’를 통해 드러나는 ‘의식’의 시간적 연속성에 있었을 뿐이었다. 여기서 의식은 이성의 이름으로 근대에 이르러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사회과학이 시간 중심, 의식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초월적 규범의 세계로 도피하거나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현실 그 자체와 대결하는 것이었다. 전자가 관념론적인 이론으로의 도피였다면 후자는 모순과 갈등이 드러나는 공간에 주목하는 현실과의 유물론적 대결이었다.

사회이론이 공간적 차원에 주목하는 것은 곧 일상과 인간 주체의 구체적 경험에 천착하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주어진 규범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주체성을 전제하고, 그러한 집합적 주체성의 변화를 시간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길은 구체적인 공간-구조 안에서 다양한 공간 전략을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의 흔적을 추적할 수 없다. 이론이 추상(abstraction)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론적 추상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은 복잡한 실재(complicated reality)를 묘사하는 것 이상일 수 없으며 이러한 묘사는 공간-구조 안에 존재하는 모순과 그 모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역사발전의 방향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Sayer, 1994: 3장). 구체적 대상이 가지는 특성을 기술하는 것에 머문다면 현 상태(status quo)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상은 최종목적지가 아니다. 추상은 다시 구체적 실재와 대면해서 또 다른 실천과 공간-전략을 통해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경로를 가질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론일 수 있다. 이론적 실천(theoretical practice)은 이론가들이 만든 그들만의 비밀암호를 통한 논쟁이 아니라 경험적(empirical) 세계와 대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이론이 경험적 구체와 대면하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들이 위치한 장소(place)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공간-구조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르페브르, 2011: 145~148, 이하 번역본의 쪽수만 표시).

2) 르페브르의 공간이론-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은 앞 절에서 살펴본 시간 중심의 사회이론, 공간이 결핍된 사회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르페브르는 공간에게 자리를 되찾아 복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시간과 함께) 공간을 생산물로 이해하는 것이다(소자, 1996). 르페브르는 생산물이 “관계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공간은 “수동적이고 비어 있는 것”이 아니며 “생산물로서 소비되며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관계로서의 공간은 “생산 자체에 개입”하기 때문이다(르페브르, 27).

르페브르는 공간의 세 가지 계기를 통해 공간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보여주려 한다. 이 세 가지 계기는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이다. 책 전체를 통해 이 세 가지 계기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설명과 묘사로부터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다.³⁾ 우선 공간적 실천은 공간을 만들어 낸다. 시대마다 서로 다른 공간적 실천이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낸다. “공간적 실천은 공간을 지배하면서, 또 전유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공간을 생산한다”(86~87). 하지만 이러한 공간적 실천의 서로 다른 형식이 각 시대의 지배적 질서를 확립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응집성을 지녀야 마땅하지만, 그 응집성이 반드시 일관성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87). 특정한 생산양식의 규정으로부터 생겨나는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예외적이지 않은) 공간적 실천은 공간의 재현으로도 재현의 공간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공간의 재현은 고안된(conceived) 공간과 관련되며 “학자들이나 계획 수립자들, 도시계획가들, 공간을 ‘구획 짓고’ ‘배열하는’ 기술관료들, 체험된 것과 지각된 것을 인지된 것과 동일시”(87)하는 전문가들의 추상화된

3) 요약된 설명은 Merrifield(2000)을 보라.

공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추상공간이 근대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르페브르의 생각이다. 권력-지식의 공모관계를 폭로하고자 했던 푸코(Michel Foucault)와 공명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르페브르는 푸코의 ‘보여주기’에 머물지 않고 공간이 담고 있는 모순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저항적 공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재현의 공간이 바로 그것이다.⁴⁾

재현의 공간은 주체들의 의해 체험된 공간(lived space)으로 공간 재현의 지배가 강요하는 추상공간으로부터 벗어난 몸의 구체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저항적 실천을 의미한다. 공간의 재현이 제시하는 순수하고, 평면적이며, 균일한 공간은 언제나 행위 주체들에 의해 ‘노동’과 ‘놀이’로 체험되며 이러한 체험은 공간이 품고 있는 모순을 담고 있기에 저항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현의 공간은 “개인 또는 집단이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성찰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다(289). 공간의 재현은 재현의 공간 안의 구체적 주체들의 실천에 의해 일관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것의 결과는 공간의 재현에 도전하는 “사회적, 정치적 실천”의 출현이다(91). 하지만 도전하는 실천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고안된 공간(공간의 재현)을 넘쳐흐르는 공간적 실천(재현의 공간)은 “체험된 것보다 인지된 것(고안된 것)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추상적이고 평면적인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82). 지배적 구조의 힘과 여기에 동반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단속

4) 푸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괄호침(bracketing)으로써 권력의 효과 아래 묶여 있는 실천들을 놓아준다. 여기서 그의 방법은 괄호치기를 통한 보여주기(showing)이며, 이러한 보여주기는 ‘기원’(origin)과 ‘총체적 구조’(total structure)로부터의 거리두기(distancing)였다. 역사는 무수히 많은 시작들(beginnings)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항상 열린 형성(becoming)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한 보여주기는 권력의 양상을 보여주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여기로부터 투쟁과 실천을 끌어내는 데는 무력했다(NcNay, 1992: 38). 르페브르는 구조와 권력의 효과에 의해 만들어진 지배적 공간 안에 잠재된 저항의 공간을 읽어내려 하고 있다. 지배적 질서 내에 잠재된 저항의 계기에 대해서는 Soja(1996)와 Merrifield(2013)를 보라.

<표 1>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

	정의	내용
공간적 실천	특정시기의 공간적 생산을 가능하게 지배적 양식	공간적 실천은 공간생산을 둘러싼 갈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항상 모순을 내포
공간의 재현 (공간재현)	고안된 공간, 또는 인지된 공간으로 추상적 공간을 생산하는 원리	학자, 계획 수립자, 도시 계획가, 기술관료 등 전문가들의 담론으로 권력의 이데올로기
재현의 공간 (재현공간)	체험된 공간으로 저항적 실천이 생겨나는 구체적 공간	구체적 실천의 공간 또는 대안의 공간으로 공간재현에 저항하는 실천이 출현하는 공간(들)

적이고 부분적인 저항을 고립시켜 체계 안으로 되돌려 넣는다는 것이다 (서영표, 2013: 333).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우리는 르페브르를 통해 자본주의 생산양식 아래에서의 ‘추상적 공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우선 르페브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추상공간은 사물과 기호의 총집합체로서 형식적인 관계, 이를테면 유리 와 돌, 시멘트와 철강, 각도와 곡선, 가득함과 텅 빈 등의 관계 속에서 ‘대상적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형식적이고 계량화된 공간은 자연과 시간(역사)에서 비롯된 차이는 물론 신체나 나이, 성별, 부족 등에서 비롯된 차이도 부정한다. 이와 같은 총체의 의미작용은 사실상 의미를 벗어나는 상부 의미작용, 즉 괄목할 만하게 눈에 띄면서도 뒤에 감추어져 있는 자본주의의 기능으로 이어진다(102).

추상공간은 예전의 주체, 즉 마을과 도시 등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이들을 해체시키며, 스스로가 이들 주체를 대체한다. 추상 공간은 권력의 공간이 되며,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모순)으로 인하여 스스로 해체될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비인칭의 의사 주체, 추상적 주체, 즉 현대적인 사회적 공간이 등장하게 된다. 진짜 주체인 국가권력(정치권

력)은 그 안에서, 환상에 불과한 투명성으로 은밀하게 몸을 감추고 숨어 있다. 이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말하여지고 글로 쓰인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곳에서는 할 말이 없고, 체험할 거리도 별로 없다. 체험된 것은 짓밟혀 버린다. 인지된 [고안된-필자] 것이 승승장구한다(104).

르페브르가 통찰한 것처럼 자본의 공간 전략은 공간을 평면화하고 교환 가능한 조각들로 만드는 것이다. 공간, 특히 도시 공간이 가지는 작품성과 상징과 의미를 거세하고 단순한 생산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13, 136~137). 이러한 추상 공간은 폭력적이다(118). 차이와 다양성을 추상화를 통해 “공통점으로 축소”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공간이 가지는 “다양성, 이들의 역사적 발생 기원”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다(227).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 사이의 관계를 변증법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간적 실천을 중심으로 공간의 재현이 우세하지만 그 안에 이미 재현의 공간을 통한 저항이 잠재적으로 잉태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새로운 실천과 공간의 재구성은 언제나 이미 잠재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비변증법적 인식은 이러한 잠재성을 실제로부터 읽어 내지 못한다. 하지만 지배적인 논리, 지배적인 계급은 “실천적·감각적인 것, 몸, 실천적·사회적·공간적인 것”을 추상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환원하지 못한다. 추상적 공간과 몸의 구체적 경험 사이의 간극으로부터 생겨나는 모순이 체계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20).⁵⁾ 결국 우리의 일상은 체계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모순과 그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는 저항을 일상으로 되돌려 넣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효과 사이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이론을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

5) 김슨과 그래함은 주체화(subjection)는 열려져 있으며 그래서 지배적인 권력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possibilities)을 갖는다고 주장한다(Gibson-Graham, 2006: 23~24).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언급된 Soja(1996), Merrifield(2013), 서영표(2012a)의 주장과 닮아 있다.

과 문화환경의 구성과 변형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의 자연-문화 환경의 변화와 공간적 실천-르페브르적 해석

1) 신화를 통해 구성된 재현의 공간

전통시대 제주인들에게 자연환경은 아름다움이 아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동시에 자연환경은 생존의 터전이며 노동의 공간이었다. 현대의 환경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과거에 투영해서 해석하듯이 자연과의 아름다운 공존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시대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들은 이러한 경외감과 두려움의 대상을 신화를 통해 공존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은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이지만 효용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대상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 아름다움과 조화로우움을 표상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신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안과 더불어 “인간의 생로병사와 생산과 안전을 주재하는 신의 내력을 통해 묘한 자긍심”까지 느끼게 했던 것이다(허남춘, 2011: 32). 제주의 신들이 육지의 신들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평범한 인간으로 고통을 견디어 내고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자긍심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허남춘, 2011: 121~122; 양영수, 2011: 188).

이렇듯 일면 상반되어 보이고 중첩된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이 제주인들의 문화적 환경을 생산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인의 공간은 기원과 제의, 그리고 놀이가 함께 어우러진 ‘곳’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그 공간에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한 수많은 신들이 함께 깃들어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허남춘, 2011: 25). 그래서 제주의 신들은 인간들 위에 군림하면서 경배의 대상이 되려 하지 않았다. 제주의 ‘본풀이’는 절박감에서 신당을 찾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야 했고 그 공감을 통해 위안을 주어야 했다. 제주의 신들은 ‘보살피는 신’들이었던 것이다(양영수, 2011: 74, 89).

이와 같은 전통시대 제주인의 공간인식은 ‘자연과 사회의 미분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신화 속의 ‘조화’와 ‘공존’을 통해 견디어 내려 했다(양영수, 2011: 109~110).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근대 시대에는 ‘백성’들이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 충족을 요구할 제도적 통로가 없었다는 데 있었다. 근대적인 민주적 제도와 인권 개념이 출현하기 전까지 ‘민초’들은 생존을 위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전통시대 제주인들은 자연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착취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설명되지 않는 자연의 힘은 신들을 통해 삶의 곁으로 당겨져야 했고, 신화적으로 구성된 공간에서의 삶은 현실의 정치적 억압을 잠시나마 잊게 해 주는 위안이어야 했다(양영수, 2011: 230). 르페브르의 용어를 빌자면 신화가 사람들의 재현의 공간으로 작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통시대 제주인들이 삶의 체험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 즉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인들은 삶의 장소 곳곳에, 즉 대문과 장독, 부엌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360여 개의 오름뿐만 아니라 화장실에까지 신들이 깃들여 자신들을 보살펴주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양영수, 2011: 81~82; 허남춘, 2011: 27). 그래서 제주의 신들은 천상으로부터 내려와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신들이 아니라 곁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대상이어야 했다(양영수, 2011: 246~247). 제주인들은 이렇듯 힘든 사회적 조건을 신화 속에서 치유 받으려 함과 동시에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킨다(이상철, 2000: 66~67; 이창기, 1995). 이러한 공동체 문화와 신화의 세계는 분리 불가능한 상태로 뒤엉켜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⁶⁾

6) 환상과 상상력을 신화의 근원으로 생각한다면 마르크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학적 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공간의 재현은 존재했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공간의 재현이 있었고 이것은 유교적 이념에 근거한 추상공간을 구체적 장소에 실현하려는 시도로 드러났다.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무속서사로 남아 있는 제주의 신화를 배경하고 유교적 이념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흐름이 강화된다(허남춘, 2011: 23). 그리고 유교적 이념에 의해 강요된 추상공간, 공간의 재현은 “제주도민들의 경제능력을 넘어선 지나친 관의 각종 부역과 진상품 요구와 지방 토호와 관리들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조성운, 2013: 84). 이것은 민초들의 공간-시간감각, 즉 재현의 공간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간극은 모순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배적 공간의 재현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재현의 공간인 무속과 신화의 세계를 근절시킬 수 없었다(허남춘, 2011: 24). 따라서 제주의 신화는 육지와와의 거리에 의해 집권층에 의한 변형을 견디어 내고 민초들의 시간과 공간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양영수, 2011: 182). 위로부터 주어진 공간의 재현과 아래로부터 형성된 재현의 공간은 조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제주인들은 몸을 통해 제주의 자연(바다, 바람, 한라산, 오름, 울레, 꽃자왈, 구름비 등)을 체험했다. 이러한 자연은 체험을 통해 삶의 공간, 즉 사회적 공간을 생산해냈다. 그들에게 체험된 공간은 고단한 삶의 공간이었

“근본적이고 독립적인 정신과정으로서 환상은 자신의 경험에 일치하는 — 즉 적대적인 인간의 현실을 극복하는 자신의 진리가치를 소유한다. 상상력은 개인과 전체, 욕망과 실현, 행복과 이성의 화해를 마음속에 그린다. 이러한 조화는 기존의 현실원칙에 의해서 유토피아로 추방되었지만, 환상은 그러한 조화가 현실이 되어야 하고, 현실이 될 수 있으며, 환상의 배후에는 지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환상이 형식을 갖출 때, 환상이 지각과 이해의 우주 —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우주를 창조할 때 상상력의 진리는 비로소 실현된다. 이것은 예술 안에서 일어난다. 환상의 인식능력을 분석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과학인 미학(美學)에 이르게 된다. 미학적 형식의 배후에는 감각과 이성의 억압적 조화 — 지배의 논리에 의한 삶의 조직에 대한 영원한 반항, 수행원칙 비판이 있다”(Marcuse, 1956: 172~173, 쪽수는 번역본).

신화는 미학적 형식의 배후에서 추상적 공간에 의해 강요된 수행원칙을 비판하면서 억압된 쾌락원칙을 되살려 내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지만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해야했던 공간이기도 했다. 그들의 체험은 지배적인 공간의 재현이 추상적으로 그려내고 배열한 공간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지배적인 공간의 재현은 곧 착취와 억압의 공간이었고 폭력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제주의 민초들이 지배적인 공간 재현으로부터 벗어난 재현의 공간으로 선택한 것은 신화의 공간이었다. 신화 속에서 자연과 인간은 신화적 질서를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푸코의 분석처럼 전근대적 권력은 삶의 곳곳에 권력의 모세혈관을 뻗칠 수 없었기 때문에(Foucault, 1979) 이러한 재현의 공간은 지배적인 공간의 재현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삶의 영역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삶의 영역은 민초들이 삶을 해석하는 인식틀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고, 때때로 저항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⁷⁾

2) 근대화의 충격-관광산업 중심의 근대화

근대화는 보통 합리화 과정과 동일시된다. 미신과 신화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이성에 기초한 추론과 계산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신화로부터 벗어나기’는 새로운 공간의 재현을 불러온다.⁸⁾ 더욱

7) ‘민중성’에 대한 강조가 과거에 존재했던 신화적 의식을 낭만화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대와 근대시대 모두 일상의 민중적 의식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 받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민중적 문화는 견디기 어려운 착취와 억압과 접합될 때 저항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역사학자 E. P. 톰슨이 주장하는 민중 문화의 독자성을 통해 제주인들의 의식세계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다(Thompson, 1991[1963]). 톰슨의 주장이 가지는 이론적-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서영표(2008)를 참고하라. 톰슨을 통해 제주인의 의식세계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체계적인 역사문헌분석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이다.

8) 전근대적인 공간의 재현이 근대적인 공간의 재현으로 선형적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의 과정은 다양한 공간적 실천 사이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저항적 재현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이러한 저항적 재현공간은 상품화폐의 논리에 의해 추상화된 자본주의적 공간의 재현 아

더 추상화된 공간 개념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신화의 세계는 비록 비합리적이었지만 삶의 두께를 껴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차가운 현금계산의 논리, 목적 달성만을 생각하는 도구적 합리성은 삶의 두께를 두드려 평평한 동질적인 면을 만들어 버린다. 근대화가 본격화되면 평면으로 축소된 공간은 상품이 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분절되고 파편화된다. 제주인은 신화의 세계 속에서 자연과 공존했다. 그 신화는 과학의 이름으로 공격받았고 자연의 정복과 개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근대화로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신화, 즉 성장의 신화, 자연정복의 신화로 귀결된다.⁹⁾

1970년대 본격화되는 제주의 경제발전은 중앙정부로부터 강요받은 관광산업 중심의 개발 전략에 의해 추진되었다(이상철, 2000: 72; 1995: 282~289). 이 과정에서 제주인들이 가지는 공간의식과 중앙정부로부터 강요받은 공간해석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관광단지 개발과 도시개발, 골프장 건설을 통해 드러난 서로 다른 공간적 의미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돌의 한 측면은 공유로서의 자연 환경이 상품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로서 문화적 환경이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제 바다, 산, 바람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받는다. 상호 연관된 총체로서의 공간이 구성요소로 분해되고 각각이 가지는 상품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조성윤, 1995: 460~465; 조성윤, 1998). 그리고 척박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견디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던 공동체 문화는 침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섬이 가진 고립성과 협소성의 제한 속에서 목장을 마을 공유지로 운영하며 자원이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했던 마을 공동목장이 골프장 건설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라져 가게 된다(윤순진, 2006: 59).

래에서도 다양한 공간적 실천을 매개로 사회 곳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르페브르가 변증법적 분석을 통해 주목하고자 했던 저항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9) 근대과학기술 문명이 또 다른 신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철학적 통찰은 Adorno & Horkheimer(1967)와 Marcuse(1964)를 보라.

제주의 근대화과정을 르페브르의 시각을 통해 재조명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불균등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중해가 휴양공간이 되어 가는 추세를 분석한다. 그가 보기에 지중해 연안은 “여가, 즉 어느 의미로는 비노동(휴가는 물론 회복기, 휴양, 은퇴 등)의 공간”으로 노동의 사회적 분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분업을 ‘신식민주의’로 파악한다. 경제적, 사회적, 건축적, 도시계획적 의미에서 휴양지로서의 지중해는 유럽의 산업화된 지역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르페브르는 지중해의 휴양공간은 태양과 바다처럼 양으로 환원될 수 없는 질을 가지는 공간이기에 자본주의적 추상화의 직접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순수하게 양적인 가치가 중요시되는 대규모 산업 중심지와 비교해볼 때 질적으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질조차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힘이다. 르페브르는 지중해의 휴양공간이 “비생산적인 소비의 공간, 거대한 낭비의 공간, 사물과 상징, 넘치는 에너지 등이 밀도 있게 희생되는 공간”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공간의 소비, 태양과 바다의 소비, 자발적 혹은 인위적 에로티시즘, 휴가라고 하는 축제 등에 이르는 시간적 연속성의 사슬 끝에서 낭비와 소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생산적인 소비는 치밀하게 조직된다.” 르페브르는 관광과 휴양산업이 비생산적인 소비로서 “관광 여행업자들과 은행, 런던, 함부르크 등지에 진출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비판한다. 르페브르의 개념을 적용하면 자본주의적 공간적 실천과 소비와 낭비의 공간 재현이 지중해라는 구체적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114~115).

지중해가 그랬던 것처럼 제주는 고도로 산업화된 육지와 대조되는 관광과 휴양공간으로 한국의 주변부에 위치한 ‘신식민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발전보다 한국의 산업화와 자본축적의 보완수단으로서 관광을 중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다(이상철, 1998: 106). 이러한 주변성은 2차 산업이 부족하고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농업마저도 육지부 시장에 의존하는 산업적 농업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자율적 재생산구조를

저해하게 된다(이상철, 1998: 116). 역시 르페브르의 통찰처럼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환경으로부터 구체적인 질(‘공간의 질’)을 원하지만(504) 상품화된 관광은 제주를 소비와 낭비의 공간으로 만들고 제주가 가지는 질을 양화(quantification)시킨다. 자본주의의 고도화는 관광객이 열망하는 ‘질’마저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근대적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제주인들이 바라보는 제주의 공간과 관광객이 바라보는 제주는 같지 않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제주인들에게 제주는 삶의 공간이자 고통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제주라는 구체적 장소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귀속감은 제주를 떠난 제주인들에게도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게 했다. 반면에 관광객에게 제주는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소비하는 대상이었을 뿐이다. 물론 그들이 화폐를 지불하고 구매하기 원했던 소비의 대상은 ‘질을 가진’ 구체적 공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행대행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으로서의 관광과 여가였을 뿐이다.

이식된 자본의 논리 그리고 공간의 재현과 제주인들의 공동체 의식 사이의 간극은 급속한 개발 과정 속에서 약화된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가 제주의 공간적 질서에 외부적 충격을 가하면서 제주인들 스스로 합리성의 이름으로 토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다. 삶의 공간과 노동의 공간으로서 두께를 가지고 있었던 공간을 밀어버리고(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위에 도시계획가와 건설업자가 재현해 낸 공간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두께가 없어지고 평면화되었기 때문에 공간은 부분으로 나누어 거래 가능하게 된다.¹⁰⁾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와 상가는 ‘평당 얼마’라는 교환 가능한 부분들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외부적 충

10) 두께를 상실하고 평면화된다는 것이 공간이 모두 균질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공간적 실체는 언제나 재현의 공간과 공간의 재현의 모순적 결합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지적하는 ‘평면화’는 지배적인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양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몸의 구체적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격은 새로운 공간적 실천의 양식을 불러오고 이러한 실천은 서서히 사람들의 의식을 침식한다. 한편으로 여전히 강한 장소귀속감과 공동체적 정신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의식이 발휘되는 것은 추상적 수준에서 제주라는 공동체를 염두에 둘 때뿐이다. 삶의 공간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은 공동체와 상징, 기억, 체험의 혼재된 두께가 있는 공간을 생각하기보다는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¹¹⁾ ‘송악산 군사기지설치반대운동’(1988)이 성공적으로 기지 설치를 막아냈지만 그 후 송악산을 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양분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식의 진동을 보여준다(조성윤·문형만, 2005: 26). 이제 사람들은 서서히 구체적 공간(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공간)보다는 추상적 공간(개발에 따른 이기적 이익이 고려되는 공간)에 치우친다.¹²⁾

11) 공동체 전체에 속할 때와 개인일 때의 가치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 간극은 대단히 크다. 공동체 전체의 수준에서는 강한 평등주의적 열망을 표출하지만 개인적 수준에서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제주의 경우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공동체 문화가 더해져 의식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한다. 개인적 수준의 욕망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출되지만 개발에 반대하는 공동체의 대의에 대해서는 매우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이러한 진동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반대 운동의 방어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상철(1998: 130)을 보라. 이러한 현상을 계급분화의 지체로 설명할 수도 있다. 조직화된 노동계급의 비중이 작고 소위 농촌 뿌리 부르주아의 비중이 높은 조건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일반의 민주적 요구에 대해서는 진보적 견해를 표현하지만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개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강하게 표출한다는 것이다(이상철, 2000: 80).

12) 이 글의 목적은 제주도 개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있지 않고, 르페브르의 통찰로부터 발전시킨 비판적-공간-사회이론에 근거해서 제주사회분석을 위한 ‘이론적 서설’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체계적인 개발사는 부만근(2012)을 참고할 수 있다.

4. 자본주의적 공간적 실천과 재현

1) 지배적 공간 재현과 도시화

이제 제주의 근대화가 가져온 공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르페브르가 언급하고 있듯이 지배적 공간 재현에 근거한 공간 지배는 기존의 공간을 “직선적이거나 사각형인 형태(그물무늬, 바둑판무늬)”로 재편한다. 도로는 낮익은 친근한 삶의 공간을 “날선 칼처럼 절단”한다. 르페브르는 이렇듯 “지배받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닫혀 있고 살균처리되어 있다”고 말한다(258).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그러나 폭력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국가가 독점하는 권력으로 정당화된 폭력이며 합리성으로 정당화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폭력이 “영토나 사람들이 지닌 원래의 가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법칙과 행정구획, 정치적 원칙 등을 강요함으로써 모든 자연에 폭력을 가한다”고 비판한다(409). 공간의 지배와 착취와 관련하여 이러한 폭력은 “외부로부터, 두드리고 자르며 분할하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공격을 반복하는 도구에 의해 발현”된다(421).

자본주의적인 공간 재현에 기초한 폭력은 하나의 장소로서 제주가 가지는 중심성과 상징을 무너뜨렸다. 제주시를 예로 중심성과 상징의 파괴를 추적해 볼 수 있다. 제주구도심에는 관덕정과 관아를 중심으로 제주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관덕정은 군사훈련장으로 건축되었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의 무대였으며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상징성 또는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은 관덕정 주위의 도심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성을 잘 보여준다. 사진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관덕정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말 건넬 수 있는 어우러짐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적 개발은 도시의 중심을 ‘날선 칼’과 같은 도로로 절단했다. 사람의 시선, 감각, 속도감이 아닌 자동차의 동선과 속도에 맞추어진

<사진 1> 입춘굿놀이(20세기 초)



출처: 제주도(1996).

<사진 2> 집회 모습(20세기 초)



출처: 제주도(1996).

<사진 3> 5일장(20세기 초)



출처: 제주도(1996).

<사진 4> 관덕정(1970년대)



출처: 제주도(1996).

<사진 5> 관덕정(현재-1)



출처: 직접 촬영(2014.02.23).

<사진 6> 관덕정(현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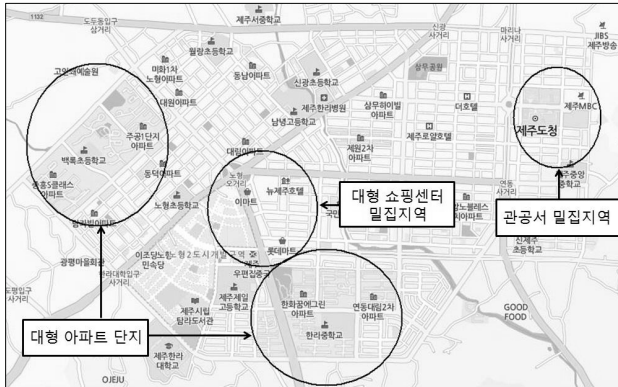
출처: 직접 촬영(2014.02.23).

도심은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공간일 뿐이다. 많은 사람이 관덕정을 바라보고 지나치지만 그 앞에 모여 이야기하고 토론하지 않는다. 몸의 감각과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끈은 끊어지고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격리된, 자동차라는 이름의 철갑으로 '보호되어' 철저하게 개인화된 인간들이 도시 안에 공존하고 있을 뿐이다(Urry, 2004: 30~31). <사진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관덕정은 대로에 의해서 절단되었다. <사진 6>에 드러난 것처럼 관덕정 주변의 도로를 관광버스와 차들이 점거함으로써 사람들은 중심적 공간을 상실한다. 이제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모이는 공간은 대형 쇼핑센터이다. 쇼핑센터 그 자체가 자동차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건설된다. 하지만 쇼핑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철저히 고립된 개인들일 뿐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비하는 기계에 불과하고 우리의 소비주의적 욕망을 일깨우도록 배치된 동선을 따라가면서 구매행위를 할 뿐이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시는 스쳐지나가는 자동차의 동선이기에 지극히 평면적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공간의 압축과 평면화는 운전석 앞에 놓인 내비게이션을 통해 완성된다. 내비게이션이 보여주는 공간은 평면적이고 직선적이다. 지도는 자동차가 진행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운전자의 시각으로부터 펼쳐진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도로에 비해 건물과 거리, 사람들은 부차적이다. 전근대 시대의 지도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상상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그 지도 위에 펼쳐진 악마와 천사, 천국과 지옥의 모습, 그리고 과장과 왜곡은 전통사회의 재현공간이 가진 삶의 두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지도는 그 깊이를 상실한 것이다.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부피와 질량을 잃고 파편화 되어 버린 것이다.

중심의 상실과 상품으로서의 공간의 타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1970년대 계획도시로 생겨난 신체주다. 신도심은 처음부터 상징과 중심성을 가지지 않았다. 평면화된 대지 위에 세워진 대형쇼핑센터와 아파트는 생산물과 상품이 불과하기 때문에 작품으로서의 도시,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흔적과 기억이 공존하는 공간일 수 없었다. 도로는 직선으로

<그림 1> 신제주(신도심) 지역의 공간적 배치



출처: 네이버 지도(map.naver.com) 편집.

주택가와 상가를 가로지른다. 위의 지도(<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도심의 중심은 쇼핑센터, 아파트단지, 관공서이며 각각은 대로에 의해 격자처럼 구획되어 절단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주변 경관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은 지역주민 또는 시민으로서 공간을 해석하고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소비자로서 공간을 구매하고 소비한다. 신도심의 랜드마크가 두 개의 대형 쇼핑센터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도청과 도의회 등 관공서가 밀집된 장소 또한 상징과 중심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의 동선과 시선으로부터 격리된, 삶과 유리된 정치엘리트 집단들만의 장소일 뿐이다.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¹³⁾

이제 사람들은 모이고 이야기하고 토론할 일이 있으면 매립지 위에 조성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만들어진 탐동광장을 찾는다(<사진 9>).

13) 르페브르는 “보는 사람, 볼 줄만 아는 사람, 그리는 백지에 선을 그릴 줄만 아는 사람, 왕래하는 사람, 자동차로 왕래할 줄만 아는 사람들은 조각으로 잘라진 공간의 절단에 일조한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공간은 축소된 모습으로만 보이게 된다. 부피는 넓이에게 자리를 내주고, 전체는 고정된 경로를 따라가 설치되며 이미 설계에 반영된 시각적 기호 앞에서 자취를 감춘다”(451~452).

<사진 7> 탑동 매립 전(1950년대)



출처: 제주시(2009).

<사진 8> 탑동 매립 후(현재)



출처: 제주의소리(www.jejusori.net).

<사진 9> 탑동광장(현재)



출처: 직접 촬영(2014.02.27).

<사진 10> 제주시청 앞 집회 모습



출처: 시사제주(www.sisajeju.com).

매립은 제주가 가지는 상징물 중의 하나였던 먹돌바위를 개발과 성장의 이름으로 파괴했다(<사진 7>과 <사진 8>을 비교해 보라). 제주인들에게 남겨진 것은 생명력을 잃은 콘크리트 덩어리와 그것과 교감할 수 없는 스쳐 지나갈 뿐인 상품구매자로서의 관광객들일 뿐이다. 그리고 그 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광장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허용된다. 하지만 먹돌바위를 부수고 그 위에 세워진 콘크리트 덩어리는 그 어떤 상징적 의미도 가질 수 없다.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갖게 하는 공통의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할인행사를 앞둔 백화점 앞에 줄 선 사람들은 결코 공통의 경험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인간이다. 제주의 공간이 간직해 왔던 것, 제주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재생산해왔던 신뢰와 연대의 끈은 이제 실낱같이 얇아져 버렸다. 일상에서 확인되는 신뢰와 연대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배에 대한 저항의 무대가 되었고 사람들의 모임을 가능하게 했던 제주의 중심성과 상징성마저도 도로에 잘려 귀퉁이로 밀려났다. <사진 10>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저항을 위한 모임은 시청 귀퉁이에 ‘허락된’ 절단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저항의 몸짓과 목소리는 커피전문점과 식당과 다르지 않은 그저 단순한 풍광일 뿐이다. 그리고 그 끝은 역시 칼날 같은 도로가 절단하여 저항의 몸짓과 목소리가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2) 분열증적 정체성-자본의 논리와 몸의 저항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충격과 그에 따른 공간의 변화는 새로운 공간적 실천 양식을 통해 사람들의 내면을 파고든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공간적 실천이 분비하는 상품·화폐의 논리, 교환가치의 논리가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주의 공간에는 여전히 공동체성,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자연과의 공존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과거로부터의 유산이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적 공간적 실천 그 자체가 불러오는 공간의 파편화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공간적 모순과 갈등은 지배적인 공간재현에 저항하는 재현공간을 출현하게 한다. 자본주의적 논리, 과거의 흔적, 새로운 저항이 제주의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의식에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는 전통적으로 지켜온 생활윤리와 규범이 있다. 그리고 화폐로 표현되는 이기적 이해관계가 있다. 여기에 자본주의적 질서가 가져온 불평등을 비판하게 하는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인권의 담론이 더해진다. 몸의 체험은 지금과 같은 공간적 실천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은 자본과 상품의 논리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져 있다. 이러한 순응은 교과서를 통해 교육받은 민주주의

와 정의의 논리로 정당화된다. 몸의 경험이 만들어 내는 제주의 시공간은 이미 “경계가 허물어져 뒤섞인(혼종)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다(김치완, 2011: 180).

하지만 일상은 교과서의 가르침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불평등한 현실과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사이의 괴리가 몸이 체험하는 불만과 만날 때 저항이 생겨난다. 몸의 체험과 불만이 마주칠 때, 사람들은 구체적인 공간에서의 몸의 체험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몰아내는 지배적인 추상적 공간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배운기, 2012: 6). 그리고 그 저항이 흔적처럼 남아 있는 공동체성과 장소에 대한 귀속감과 마주칠 때 고립된 저항은 새로운 정치로 거듭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마주침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은 몸과 습관, 의식,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충돌하는 의식을 가지며 그 결과는 분열증(schizophrenia)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몸에 감각의 흔적을 지우고 그 위에 욕망의 지도를 그린다. 평당 얼마로 분절화 된 토지와 아파트에 대한 욕망의 주입된다. 애초에 공간은 화폐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감각, 기억,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잘라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라서 팔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감각, 기억, 상징을 씻어내고 서로 교환 가능한 부분들을 절단해야 한다.¹⁴⁾ 하지만 절단은 공간의 절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간은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것들이 촘촘히 뒤엉켜 있는 덩어리이다. 결국 공간의 절단은 우리의 삶을 절단하는 것이다. 화폐적 논리와 이에 저항하는 몸의 감각과 흔적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충돌에서도 드러난다.

14) 르페브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편협하고 무미건조한 합리성은 공간의 토대와 기초, 즉 완전한 몸, 뇌와 몸짓 등을 송두리째 제거해버린다. 이러한 합리성은 공간이 지적인 재현의 투사, 즉 독해 가능하며 보이는 것이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소리 들기와 움직이기(몸짓과 물리적인 이동)로 이루어져 있음을 망각한다”(302).

현존하는 관계 위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다’와 ‘구름비 바위’는 현재를 떠받치는 살아 있는 현재들의 축적인 과거로서 대체 불가능한 반면, 법적인 관계 위에서 ‘그것들’은 단순한 합법적 권리의 대상으로 양도, 판매, 대체 가능한, 그래서 새로운 생산물을 위한 재료로서 개조 가능한 상품이 되어 버린다(배운기, 2012: 25).¹⁵⁾

상품화폐의 논리가 공동체 문화를 침식하고 추상적 공간이 구체적 공간을,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지금에도 제주인들은 제주의 자연 환경과 문화 환경의 공공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식의 발로가 지하수를 사유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제주도의 민심이다. 제주도민은 지하수를 ‘공수’ 개념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김선희, 2013: 48~49; 최현, 2013: 92~99). 더 나아가 풍력자원 또한 공공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태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주도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대기업에게 풍력발전단지를 허가해 주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2011년에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제주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김동주, 2012: 193).¹⁶⁾

이렇듯 절단과 분절화가 우리 몸의 경험과 기억을 모두 지울 수는 없다. 우리는 소비하는 기계, 생산하는 기계, 영혼 없는 사이보그가 될 수

15) “주민들에게 구름비는 하나의 살아 있는 친구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 구름비는 하나의 사물로서 대상, 즉 내용적으로 관찰되고 파악되며 그래서 어떤 다른 것과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다”(배운기, 2012: 33).

16) 공공적 자원 관리의 주체를 도지사의 판단에 맡긴 것은 제고해야 한다. 도지사가 친개발, 친자본적일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탓이 크다.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그 어떤 추상적 지식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리듬을 통해 욕구와 필요를 표현한다.¹⁷⁾ 그리고 그러한 욕구와 필요는 오랫동안의 동료인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개되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문화적 무의식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가라앉아 있다. 절단된 공간과 추상화된 지식, 상품소비를 통해 부과된 평면적 정체성의 빈틈을 비집고 몸의 리듬과 집합적 기억이 솟구쳐 오른다. 추상적 지식과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그 이면에 가라앉아 있는 기억과 감각은 일상을 사는 개인들의 의식 속에서 충돌한다. 주변화 된 제주의 지리적 위치가 생산한 구체적 공간의 실체는 이러한 충돌의 양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공간의 재현을 넘어설 수 있는 ‘비판적 주변성’의 잠재된 힘을 담고 있다(배윤기, 2012: 11).

5.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s)－몸의 체험과 도심 재생

사용자의 공간은 재현된(인지된) 공간이 아니라 체험된 공간이다. 전문가들(건축가, 도시계획가, 기획인안가)의 추상 공간에 비해서,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성취하는 수행적 공간은 구체적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공간이다. 계산의 공간, 재현의 공간이 아닌 ‘주체들’의 공간은 시련과, 습득, 결핍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그 근원으로 삼는다. 회피할 수 없는 성숙과정, 지루하고 힘든 그 성숙 과정과 애초의 자원과 비축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미숙 사이의 갈등이 체험된 공간을 특징짓는다(516).

17) 이에 대해 르페브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물리적인 공간, 실천적·감각적 공간은 이렇듯 후천적인 지적 지식의 투사에 대항해서, 지식에 의한 축소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재현하며 재구성한다. 절대적인 참, 지고지순의 명쾌함이 지배하는 공간에 대항해서 지하세계의 것, 측면적인, 부수적인 것, 미로처럼 복잡한 것, 어쩌면 자궁적인 것, 여성적인 것을 복권시키는 것이다. 비-육체의 기호에 대항해서 육체의 기호를 내세운다. ‘말기에 들어선 서양에서 몸의 역사는 다름 아닌 몸의 반항의 역사이다’”(302).

1) 경쟁하는 담론—개발, 관리, 보존

제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의 의미를 둘러싼 갈등은 그 자체로서 제주의 공간을 형성하고 또 다른 공간적 실천의 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환가치(상품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개발전략이다. 비록 갈등적이지만 교환가치의 논리는 추상적 공간을 통해 제주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공간은 제주인들로 하여금 여전히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이렇듯 상반된 의식이 제주의 미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발업자와 도외자본은 제주의 공간과 환경을 ‘개발’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의식적인 지역주민과 시민운동은 ‘보존’의 논리로 이에 맞선다. 도청과 정부는 이 두 입장 사이에서 환경과 공간의 합리적 ‘관리’를 주장한다. 현실에서 ‘관리’는 노골적인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한다.

‘개발’의 논리는 제주의 공간과 환경이 가지는 화폐적 가치를 극대화하려 한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적 환경은 오랜 지질학적 시대와 역사시대를 거쳐 만들어진 그래서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공통의 자산이다(Harvey, 2012: 73). 그런데 공존과 보존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의 논리는 제주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근거마저도 파괴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출현한다. ‘개발’의 논리는 곧 ‘이윤’의 논리이며 이윤만을 추구하며 공통의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개발업자는 절단된 공간으로부터 단기적으로 극대의 이윤을 뽑아내려하기 때문에 이윤의 근거가 되는 자연과 공간의 독특성을 마모시킨다. 시간이 갈수록 관광객을 유인하는 제주만의 독특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Harvey, 2012: 104~105). 한마디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코너(James O'Connor)의 주장처럼 자본은 스스로의 축적 기반을 허물게 되는 것이다(O'Connor, 1998: 164~166).

역시 오코너가 지적한 것처럼 이런 경향은 국가의 개입을 불러온다(O'Connor, 1998: 168). 국가(정부)가 ‘관리’의 논리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관리담론은 제주라는 공간이 담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깊이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정당화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현 우근민도정은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중산간과 곳자왈에 개발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1월의 행정심판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무산되긴 했지만 해발 850m 한라산 입구인 관음사 앞 ‘힐링인라이프’ 휴양시설 개발 논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건립의 호텔과 리조트 사업으로의 전략과 곳자왈 파괴 등 도청은 ‘관리’의 허울 아래 개발주의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정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녹색’ 전망과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생겨난다. 도청이 내세우는 ‘관리’는 지극히 반환경적인 정책을 녹색담론으로 포장하는 녹색분칠(green wash)의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Dryzek, 2005). ‘세계환경수도 유치’와 ‘탄소 없는 섬’이 제주도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되고 있지만 생태적으로 보존해야만 하는 중산간과 곳자왈이 개발사업에 의해 파괴되듯이 목인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주먹구구식 도심 개발과 도로 건설이 제주 곳곳을 파헤치고 있다.

‘보존’의 논리는 이러한 공모(개발동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존’의 논리는 구체적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험-감각과 유리된 규범적 추상공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보존’의 논리는 전통시대의 구체적 체험과 재현의 공간조차도 현재의 시각을 투영하여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구도완, 2006; 서영표, 2014). 김슨과 그래함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경향은 기존질서를 넘어서고자 하는 급진파들이 갖고 있는 멜랑콜리아(melancholia)일 수도 있다. 미래를 향한 동원, 동맹, 변형의 가능성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순수한 도덕주의에 집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온다. 급진주의자들은 상처, 실패, 피해자됨(victimhood)에 호소한다(Gibson-Graham, 2006: 4~5).

정치적 좌파는 기존 질서에 대해 비판적이고 그 안에서 착취 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착취와 억압을 유지하는 체제 재생산의 주체들이라는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역설은 현실 분석과 현실을 극복한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청사진’ 사이의 커다란 간극으로 나타난다. 비판사회이론은 이 분리를 다시 연결하려 하면서 종종 이상주의적이거나 본질주의적인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해방의 근거로서 인간의 본성과 같은 초월적이고 초역사적인 준거점에 기대려 하게 되는 것이다. 비판의 근거를 구체적 사회적 조건에서 변증법적으로 찾으려는 시도로부터 이미 고정된 초월적 근거 또는 이념에서 ‘해방’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로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이다(서영표, 2012b: 199~200).

‘보존’ 담론은 과거, 도덕, 이념으로 경도되는 그만큼 ‘지금-여기’를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다. ‘보존’의 논리는 이미 상품-화폐의 논리를 내면화한 소비주의적 주체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담론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보존’의 논리는 낭만적으로 과거를 불러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아름다운 이상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제주의 구도심 재생

제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도심 재생을 통해 ‘관리’와 ‘개발’의 공모를 비판하면서 ‘보존’의 논리가 갖는 이상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건설업자의 개발 논리는 구도심이 그나마 간직하고 있는 기억, 상징, 중심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곳에 아무런 의미도, 기억도, 상징도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생이 아니라 파괴이며 르페브르의 지적처럼 추상적 공간의 폭력일 뿐이다. 추상적 공간의 폭력은 합리성과 편리함으로 무장한다. 반대편 ‘보존’의 논리는 낭만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편함의 인내를 호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발’에 반대하는 논리는 사람

들에게 공간과 환경을 위해 편리와 복지를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추상적 공간의 폭력이 편리와 복지의 명목 하에 강탈하고 있는 ‘행복’과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추상적 공간의 폭력 아래 겪고 있는 우리 몸의 고통을 보여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편함의 인내가 아니라 더욱 크고 지속적인 즐거움의 향유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동차 이용을 통해 얻는 편리함과 그것을 통해 잃고 있는 즐거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의 몸은 공간을 체험한다. 몸은 자동차의 속도로 움직일 때 공간으로부터 분리된다. 우리의 몸은 보행자의 속도, 리듬, 시선으로 움직일 때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공간과 그 공간 안에 배치된 건조환경을 느끼고 감상하고 즐길 수 있다. 그럴 때에만 동료인간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다. 보행자의 속도, 리듬, 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평면화 된 공간에 부피를 되돌려줌으로써 공간의 부피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장소에 귀속된 정체성은 폐쇄적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만큼 보수적이었다. 몸의 감각과 보행자의 속도, 리듬, 시선으로 복원된 공간은 전통적 장소성이 가지는 폐쇄가 아니라 개방과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근대적 합리화는 도구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면서 부정적 효과를 극대화시켰지만 동시에 폐쇄를 넘어서 개방,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위계가 아닌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제 복원된 공간의 깊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적 행위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노동의 공간은 놀이와 축제의 공간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주침(encounter)의 열린 공간이며, 이러한 마주침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실천을 파생시키면서 삶의 공간을 차이와 연대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18) 몸과 리듬에 대한 르페브르의 주장은 Lefebvre(2004)를 참고하라. 르페브르는 감각적인 것을 복원함으로써 부르주아적인 객관성의 좁은 틀을 벗어나라고 요구한다(Lefebvre, 2004: 102~103, 117).

제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잃고 있는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생된 도심은 역사적 흔적과 기억(성터, 박물관 등), 기념물, 공원과 쉼터, 동네 상점과 주택가가 골목으로 연결된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 차를 위한 도로로 절단되지 않고 서로 뒤엉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콥스(Jane Jacobs)가 오래전에 호소했듯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 거리와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이 아이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어른들의 시선 아래 보호된다(Jacobs, 1961: 118~119).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만들어내는 상품전시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거닐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문화와 역사를 공감하면서 능동적으로 소비한다. 물건사기는 사람들과 만나고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행위와 분리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쇼핑센터는 오직 소비하는 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추상적으로 계획된 공간이지만 재생된 거리에는 쇼핑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말 건넌과 흥정이 있다.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추상적 공간 속에서 상실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소퍼(Kate Soper)가 주장하는 대안적 쾌락주의(alternative hedonism)를 추구하는 것이다(Soper, 2008; 서영표, 2009).

현재 제주시에서 구도심 재생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은 자동차 없는 거리와 원도심 도보관광 코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시된 미주침과 말건넌과 흥정이 있는 도심복원의 일면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제주목관아지, 관덕정,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오현단을 연계하는 테마관광 코스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은 여전히 제주가 벗어나야 할 개발주의에 묶여 있다. 사업의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맞추어져 있고 전면에 내세운 역사와 문화의 결합은 ‘관광 상품’으로만 간주된다. 산책로와 쇼핑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테크놀로지 분수쇼와 레이저 멀티미디어 쇼가 제공될 계획이다(강세나, 2013). 문화와 역사는 구체적인 장소에 살아 숨

<그림 2> 탐라문화광장 조감도



출처: 제주도정뉴스(news.jcu.go.kr).

쉬는 것이지만 개발주의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제한된 공간에 가공된 문화와 역사를 강제로 넣으려 한다. 역사와 문화가 간직하고 있는 주름과 패임은 펴지고 지워져서 ‘전시’된다. 내용은 사라진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다(<그림 2> 참조).¹⁹⁾

구도심의 재생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 몸의 체험을 가장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공간의 두께가 복원되고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돌아오며 발에 차이는 돌맹이 하나, 길가의 나무 한 그루, 오랜 세월을 견뎌온 담장 하나조차도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탐라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꾸어온 삶의 양식과 신화의 세계가 우리 삶의 걸음으로 되돌아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가꾸

19) 제주개발공사에서 발간된 제주구도심 재생전략에 관한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프로그램”, “도심 관광 및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상권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엄상근, 2013: 58~59)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존에 개발된 도심 쇠퇴에 대한 양적 측정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삶의 공간의 복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사회’, ‘물리환경’, ‘산업경제’의 세 영역을 점수화하여 제주시의 19개 동지역을 비교하고 있다.

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생은 때를 지어 이동하는 쇼핑하는 무리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이동하는 수단인 자동차를 위한 주차공간에 맞추어져 있다. 제주문화, 탐라 사람들의 삶의 독특함은 자연, 사람, 신화의 어우러짐이다. 이것이 문화적 자원이다. 하지만 탐라문화광장에는 그러한 어우러짐이 없다. 구체적인 장소들에서 분리된 조각들을 콘크리트 위에 영성하게 짜 맞추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나폴리는 나폴리만의 풍광을 가진다. 파리에서는 파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의 향기가 난다. 프라하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어우러져 합스부르크왕가의 문화적 수도의 위용을 자랑한다. 하지만 제주의 건물, 거리, 광장에서 제주의 향기를 느낄 수 없다. 탐라문화광장사업은 제주의 제주다움, 탐라다움을 지우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쇼핑센터, 공원,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에 전혀 ‘제주답지 않은’ 박제된 문화를 덧씌우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은 도심을 살려내지 못한다. 우리 몸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체험과 감각에의 호소는 자본주의적 상품과 화폐의 논리를 거부하고 있다. 도심의 재생은 이러한 몸의 저항에 원래의 리듬감을 되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몸의 저항은 소비사회의 욕망으로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몸 그 자체에 각인되어 있는 인간의 생물학적-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는 도심 재생은 몸이 저항하고 있는 상품-화폐의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과 문화의 외피를 쓴 개발주의의

20) “공간, 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조의 일부가 되어 형성된 맥락이 아니다. 나의 공간은 우선 나의 몸이며, 나의 몸을 그림자처럼, 반사된 상처를 따라다니는 나의 몸의 타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공간은 나의 몸을 건드리는 나의 몸에 닿으며 나의 몸을 위협하거나 선호하는 것과 다른 모든 사이에 놓인, 움직이는 중간지대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미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자면, 거기에는 거리감과 긴장감, 접촉, 단절이 있다. 하지만 공간은 이 같이 다양한 의미 효과들을 통해서 복제와 메아리, 반향, 중복 등으로 구성되어 희한한 차이를 만들어내며, 그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깊이 속에서 체험된다”(281).

이면에는 토건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개발동맹’이 있다(Harvey, 2012: 100~101; 최병두, 2012: 103).

3) 몸의 체험과 탈자본주의적 공간

몸의 감각과 체험에의 호소는 ‘개발’과 ‘관리’ 사이의 동맹을 비판하고 공간의 깊이를 회복하는 길은 일상의 정치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운다. 구체적 공간에서의 구체적 몸짓, 몸의 경험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측정될 수 없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을 화폐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환원하여 측정하려고 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몸의 체험과 공간의 깊이를 회복하는 것은 ‘차이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차이의 공간을 ‘차이의 권리’로 확장한다. 그는 “차이에 대한 권리, 다름 권리는 분명하게 실천적인 행위와 행동, 궁극적으로는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 즉 구체적인 차이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차이에 대한 권리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정상으로 간주되는 관계의 코드가 내포하는 원칙적인 소유권과는 달리 오직 그 내용에 따라서만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인다(560).

차이에 대한 권리는 형식적으로만 주어진 민주주의를 넘어선다. 차이와 몸의 경험은 가격신호에 의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만큼 투표소에서 싱겁게 끝나버리는 민주주의에 의해서도 드러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몸의 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며 차이에 대한 권리는 삶의 현장, 일상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참여, 대화, 소통, 토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보자. 민주주의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몸이 경험하는 ‘내용’이 표현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몸이 느끼는 다양한 형태의 쾌락과 행복이 온전히 표현되고 소통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몸의 체험이 가지는 다양성과 차이는 민주

주의를 고정된 형태로 놓아두지 않고 끝없는 수정에 열어두는 공간적 실천의 새로운 양식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몸의 체험은 필요(needs) 개념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구체적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입장과 위치로부터 몸이 경험하고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필요를 가진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른 위치와 문화로부터 인식된 필요들이 논의되고 사회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²¹⁾ 사람들에게 의해서 경험되는 필요가 상품-화폐-시장의 고리에 얽이어 들어가게 되면 필요가 경험되고 인식되는 공통의 공간적 실천은 사라지고 상품-화폐-시장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개별화되고 경쟁적인 욕망의 사슬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필요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는 상품-화폐-시장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의식을 몸의 구체적 체험에 근거해 탈자본주의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을 의미한다. 이것은 탈자본주의적인 역능(capacities)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²²⁾

6. 맺음말

현대 자본주의의 틀을 지탱하는 거대자본의 총수들과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시장경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다보스포럼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매일경제세계지식포럼 사무국, 2012). 물론 그들은 더 나은 축적양식을 고민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개발주의의 명령에 사로잡혀 있다. 개발독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개발주의는 아직도 건재하다. 개발주의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을 불도저로 밀어

21) 계획과 참여민주주의의 결합에 대해서는 Devine(2002; 2010)과 Elson(1988과 2000)을 참조하라.

22) 필요개념과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서영표(2012a: 83~93)와 서영표(2009a: 10~11장)를 참고하라.

버리고 그 위에 ‘욕망’과 ‘소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건축물들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관성이고 습관이며 토건자본의 숙명이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힘인 것처럼 보인다. 댐으로 강줄기를 막았고 강변을 콘크리트로 발라 직강화 했다. 강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모조리 잘라내어 강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 온 균형을 무참히 파괴했다. 사람들도 그렇게 파괴된 균형 위에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왔다. 골목이 있고 사람 냄새가 났던 마을들은 몽개져 고층 아파트로 거듭나고 있다. 거기에는 몸의 감각과 체험은 없다. 그저 아파트를 열망하는 소비하는 기계들이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자본과 소비의 논리가 전국 방방곡곡을 공사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름다운 경관을 간직한 구석진 곳까지 리조트와 휴양지가 건설된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일까?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하지만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론적 출발점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주변이기 때문에 자본과 소비의 논리가 준 충격이 더욱 크게 느껴지지만, 주변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몸의 체험과 감각, 비록 신화 속에 서였지만 인식하고 있었던 조화와 공존, 그리고 힘겨운 삶 속에서 형성된 끈끈한 공동체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는 그러한 노력이 시작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일 수 있다. 일면 추상적 공간은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추상적 공간은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기에 우리 몸의 한계와 자연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다. 그것은 저항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 저항은 르페브르의 말처럼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만이 존재감을 인정”받으려는 몸짓일 수 있다(106). 전통-근대-탈근대라는 비동시대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제주는 이러한 차이의 공간을 찾으려는 원초적인 몸짓과 응얼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 과거의 흔적, 현재에도 살아 있는 기억, 현재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체험과 감각,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망이 동시적으로 어깨를 짓누르기에 고통스럽지만 ‘비동시대적인 것의 공존’은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원고접수일: 2014년 3월 2일

심사완료일: 2014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5일

최종원고접수일: 2014년 3월 20일

❖ Abstract

Conflict between Abstract Space and Concrete Space
in the Case of Jeju-Island

Seo, Young-Pyo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both historical-structural aspect and social practices that produce specific space through the case of the Jeju-Island. Both natural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lived as space of the Jeju have been the conditions of actions or practices of the Jeju people, but these environments could not have existed without their actions or practices. In order to analyse these complex interrelations, this paper employs spatial social theory proposed and developed by Henry Lefebvre. Lefebvre had tried to sophisticate spatial social theory that could deal with spatial aspect of our society. His idea on space reached its high point in *The Production of the Space*.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round his urban theories, but it is undeniable that he played a pivotal role of inspiring a lot of geographers, sociologists and historians to introduce space into their research. With Lefebvre, this paper explores conflicts between dominant abstract space and everyday concrete space(space of differenc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ase of Jeju through which we can explore how the development focusing tourism has eroded the spatial consciousness of Jeju people will be analyzed in terms of communal ties. And then it criticizes the modern urban development and discusses an alternativ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Keywords: Henry Lefebvre, production of space, Jeju-Island, modernization, urban regeneration

참고문헌

- * 번역본을 참고한 경우는 원본 다음에 번역본을 표시했지만 번역본이 있더라도 원본을 참고한 경우는 번역본을 표시하지 않았다.
- 강세나.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탐라문화광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62권 714호, 70~71.
- 구도완. 2006. 『한국 환경운동의 담론-낭만주의와 합리주의』. 《경제와 사회》, 제69호, 128~153.
- 김동주. 2012. 『제주도 바람의 사회적 변형과 그 함의-자원화와 공유화』. 《환경사회학연구ECO》, 제16권 1호, 163~204.
- 김선필. 2013.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공동자원 개념의 도입-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ECO》, 제17권 2호, 41~78.
- 김치완. 2011. 『제주에서 철학하기 시론: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9호, 177~213.
-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2012. 『다보스 포럼, 자본주의를 버리다』. 매일경제 신문사
- 배윤기. 2012.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로컬-기반의 이해와 로컬리티의 정치』. 《한국민족문화》, 제43호, 345~389.
- 부만근. 2012. 『제주지역개발사』. 제주발전연구원
- 서영표. 2008. 『영국 신좌파 논쟁의 재해석-헤게모니개념에 대한 상이한 해석』. 《경제와 사회》, 제80호, 248~274.
- _____. 2009a. 『런던코뮌-지방사회주의의 실험과 좌파 정치학의 재구성』. 이매진
- _____. 2009b. 『소비주의 비판과 대안적 쾌락주의-비자본주의적 주체성 구성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32호, 5~41.
- _____. 2012a.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 《마르크스주의연구》, 제9권 4호, 68~102.
- _____. 2012b. 『사회비판의 급진성과 학문적 주체성-급진민주주의론의 옹호를 위한 자기비판』. 《경제와 사회》, 제96호, 190~217.
- _____. 2013. 『사회운동이론 다시 생각하기: 유물론적 분석과 지식구성성의 정치』. 《민주주의의 인권》, 제13권 2호, 303~346.
- _____. 2014. 『민주주의의 생태적 확장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계간민주》, 제10호, 44~69.
- 엄상근. 2013. 『제주시 원도심 도지재생 전략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양영수. 2011. 『세계 속의 제주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윤순진. 2006. 『제주도 마을 공동목장의 해체과정과 사회·생태적 함의』. 《농촌사회》, 제16집 2호, 45~88.

- 이상철. 1995. 『제주사회변동론 서설-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
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 _____. 1998.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 이창기. 1995.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도전·적응·초월의 메커니즘』. 신
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 제주도. 1996. 『제주100년』. 제주도.
- 제주시. 2009. 『(문화광장) 사진으로 보는 제주 옛모습』. 《(열린)제주시》, 제31호.
- 조성윤. 1995. 『개발과 환경, 그리고 농촌공동체의 붕괴-제주도의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신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 _____. 1998. 『개발과 지역주민운동-제주시 탐동 개발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신행
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 _____. 2013. 『제주도 해양문화 전통의 단절과 계승』. 《탐라문화》, 42호, 75~99.
- 조성윤·문형만. 2005. 『지역 주민 운동의 논리와 근대화 이데올로기』. 《현상과 인
식》, 통권97호, 9~30.
-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한울아카데미.
- 최현. 2013. 『제주의 토지와 지하수-공동자원으로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환경사
회학연구ECO》, 제17권 2호, 79~106.
- 허남춘. 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Adorno, Theodore. W & Max Horkheimer. 1969. *Dialectic of Enlightenment*. New York:
Seabury Press.
- Althusser, L. 1977. *For Marx*. London: NLB.
- Althusser, L. & E. Balibar. 1979. *Reading Capital*. London: Verso.
-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London: Edward Arnold.
- Devine, P. 2002. "Participatory Planning through Negotiated Coordination." *Science and
Society* 66(1), 72~93.
- _____. 2010. *Democracy and Economic Planning*. Cambridge: Polity Press.
- Dryzek, J. S. 2005. *The Politics of the Earth*.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판 번역 정승진 역. 2005.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에코리브르)
- Foucault, M. 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 Foucault, M. 1984. "Nietzsche, Genealogy, History." Paul Rabinow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 _____. 1998. *The Will to Knowledge: The History of Sexuality I*.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Gibson-Graham, J. K. *A Postcapitalist Politics*. Minneapolis & London: Minneapolis

- University Press.
-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최병두 역. 2009. 『희망의 공간』. 한울아카데미)
- _____.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London & New York: Verso.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Harmondsworth: Penguin Press. (유강은 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 Keat, R. and J. Urry. *Social Theory As Sci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 _____. 2004. *Rhythmanalysis: Space, Time and Everyday Life*, London & New York: Continuum. (정기현 역. 2013.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갈무리)
- McNay, L. 1992. *Foucault and Feminism: Power, Gender and the Self*. Cambridge: Polity Press.
- Marcuse, H. 1956. *Eros and Civilization-A Philosophical Inquiry into Freu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김인환 역. 2004. 『에로스와 문명-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 3판. 나남)
- _____. 1964. *One Dimensional Man-Studies in the Ideology of Advanced Industrial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errifield, A. 2000. "Henri Lefebvre: A Socialist in Space." M. Crang & N. Thrift eds. *Thinking Spa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_____. 2013. *The Politics of the Encounter: Urban Theory and Protest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Athens, Georgia: The Georgia University Press.
- O'Connor, J. 1998. *Natural Causes*. London & New York: Guilford Press.
- Saunders, P. 1986.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2nd edition. London: Hutchinson.
- Soja, E. W. 1985.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Towards a Transformative Rethorization." D. Gregory & J. Urry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 _____. 1989.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London & New York: Verso. (이무용 역.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가과 언어)
- _____. 1996. *Thirdspace*. Oxford: Blackwell.
- Soper, K. 2008. "Alternative Hedonism, Cultural Theory and the Role of Aesthetic Revisioning." *Cultural Studies*, 22(5), 567~587.
- Thompson, E. P. 1991[1963].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London: Penguin
- Urry, J. 1985. "Social Relations, Space and Time." Derek Gregory & John Urry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 _____. 2004. "The 'System' of Automobility." *Theory, Culture, Society*, 21(4/5), 25~39.